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래 불확실성의 위험 대처할 방안 찾아야 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인과 그것이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 권수중(삼성경제연구소 경제학 박사)

가파른 유가 상승에 국제 원자재 가격마저 크게 오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자재 가격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때문에 '원자재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먼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달러화 가치 하락. 둘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셋째, 투기적 거래. 넷째, 미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의 단기 급등은 달러화의 가치 추락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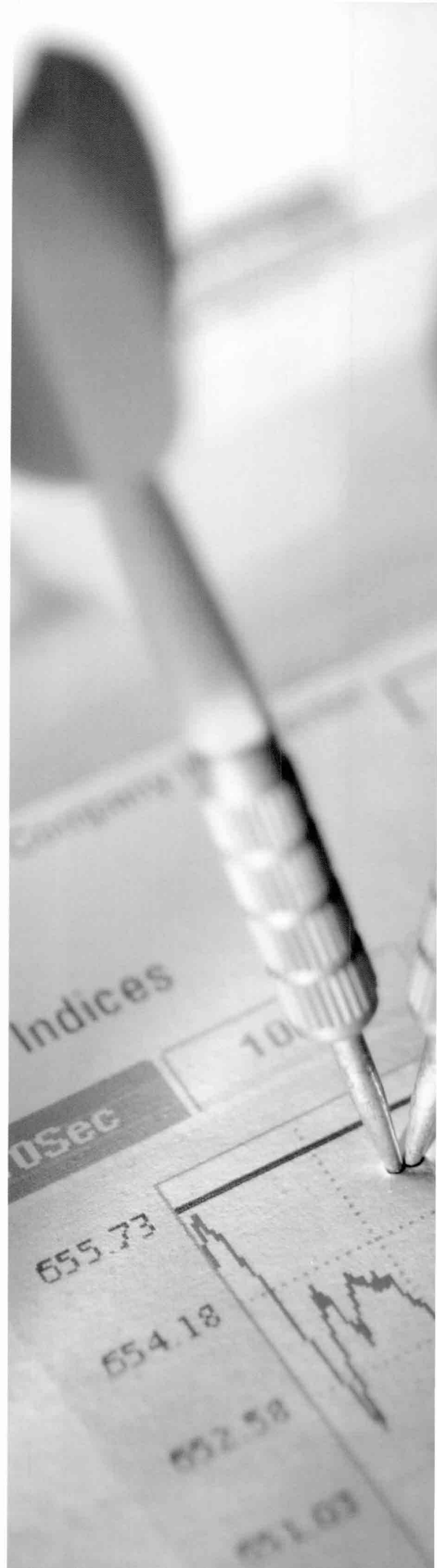
미국 경제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자본 차입에 의해 성장하는 차입 경제 시스템이다. '달러 리사이클링(Dollar Recycling)'이란 말은 미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처럼 미국 달러화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제가 미국 재무성 채권을 매입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재차 미국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이 때 들어온 달러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 가계가 소비를 하는 형태의 경제를 말한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소위 '쌍둥이 적자'다. 정부는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부담하고 있으니 재정 적자이고, 가계는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으니 과잉 소비를 통한 가계 부채의 부담을 지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경우 국내 생산과 이에 따른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대부분 서비스 산업이고, 제조업은 다국적 기업 형태로 외국에 공장이 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같은 빅3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미국 내 주요 생산 기업이 많지 않다. 일자리가 없으니, 분명 가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 달러화 하락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지난 2000년까지는 IT·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미국 가계의 소득을 부풀려왔지만, 이들 주식 시장의 버블 붕괴로 이마저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 그 와중에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다. 이것이 주택 시장 거품을 키우고,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의 단초가 됐다. 지난 5년간 미국은 주택 가격의 거품으로 생긴 매입가와 미래 매도가의 차이를 주택 구입자가 미리 대출을 받아 소비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경제 성장을 유지해온 셈이다. 그래서 주택 가격 거품이 일시에 빠지거나 매입 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소비자는 빚에 빚을 얻는 격이 된다. 문제는 대출자들이 모기지 원리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 회사는 대출 회사대로, 대출 회사에 투자한 투자 금융 기관은 금융 기관대로, 연쇄적인 부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고용과 소비의 감소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쌍둥이 적자는 다른 말로 하면 달러화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것이다.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지나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의 총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다. 마침내, 달러 가치는 더욱 하락한다. 달러화 가치 하락을 본격화한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다. 달러 표시 자산 가치도 급락 때문에 달러보다 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금값이 온스당 1000달러를 넘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붕괴될 때, 수출





대금을 미 달러화로 결제할 것을 약속했다. 미 달러화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 결제·준비·개입 통화의 가치를 지니게 된 가장 큰 이유다. 브레튼우즈 체제란, 금1온스당 미국 달러의 35달러와 언제든지 바꿔준다는 것을 약속한 통화 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미국이 베트남 전쟁 참여로 막대한 군비 지출과 경상 수지 적자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자, 이 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라 불리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다. 석유 가격을 배럴당 25달러로 고정해보자. 유가는 일차적으로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배럴당 원유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시작되자 상대적으로 유가가 하락했다. 당연히 산유국으로서는 유가를 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하고, 달러화 결제를 유로화나 다른 통화로 전환하는 방법과 석유 생산을 감량하는 것이다. 유가 상승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모두 포함돼 있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25억 명 인구가 유입되면서 석유 소비가 급증하는 반면, 정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공급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결제 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달러 자산보다 실물 자산 가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달러보다 실물 자산을 보유하려 든다. 신흥 개도국의 등장으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니 당연히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가 발생한다. 이는 또 다른 버블을 낳게 된다. 유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이유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수입 단가 상승은 볼 보듯 뻔하다. 가공 무역의 경우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은 수출 단가 상승을 가져오고, 내수 산업의 경우 생산자 물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생산자만 모든 부담을 지게 된다. 자칫 자국 화폐의 환율이 충분히 절하되지 않으면 수출 기업도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 불안, 소득 감소, 소비 둔화, 저성장으로 악순환된다. 한쪽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성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일어난다.

건설업 피해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스태그플레이션의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쪽이 건설 산업이다. 보통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산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1개월, 소비자 물가에는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건설 관련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고통을 받는다. 첫째, 생산 원가가 올라도 납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 시멘트, 콘크리트 등 자재 가격 어느 하나 들쭉거리지





않는 게 없다. 지방 도시의 경우, 건설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니 중소 건설 업체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형 건설 업체도 그리 녹록하지 않은 않다. 그렇다고 이를 모두 중소형 건설 업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족쇄가 될 뿐이다. 둘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이익의 마진이 감소하면서, 수익 감소와 유동성 경색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다. 중소 건설 업체의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 있다 손 치더라도 사후 약방문 식이다. 먼저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대책에 힘써야 한다. 자원 자주율이 4.5%에 불과한 한국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환율마저 요동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보고 중소 업체들의 단가 현실화 요구가 거세다. 소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도 묘책이 없다. 세금을 내리고, 가격 단합과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것밖에 별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수직적 분업 형태의 산업은 비용 상승 부담에 대한 배분을 두고 설왕설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건설된 아파트도 '땡처리'를 해야 하는 지경인데, 새로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무모한 돈키호테식 발상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호주머니 속 지갑이 얇아지고 있어 새로운 구매 욕구가 생기지도 않는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기다리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결국 건설 경기 악화와 원가 상승이 겹치면서 건설 산업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당장은 대응책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미래 전망을 제대로 짚어보면 여기서 대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원자재 가격은 1~2년 내 급락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달러 가치 하락과 투기적 수요가 거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25억 명 소비자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의 가격 상승은 너무 가파르다.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꺼진다.

둘째, 미래 불확실성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중소형 건설 업체의 경우, 직간접 수입 형태가 아니라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 회피 방식에 대한 관심과 금융 기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자원이 없는 국가 경제로서는 과학과 기술 발전을 제외하고는 묘책이 없다. 건설 현장의 비용 절감을 고용 문제로 풀겠다는 방식보다 기술 발전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1~2년간 아마 혹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쉬는 것과 더 강하고 빠른 속도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1차 오일 쇼크 당시 위기는 중동 건설 붐으로 극복했다. 또 다른 위기의 해법이 과연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